

한중경제포럼

제22-05호 2022년 12월 30일

2022년 중국 거시경제 회고 및 2023년 전망

2022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22년 중국 거시경제 회고 및 2023년 전망
2. 일 시: 2022. 12. 22 (목) 14:00~16:3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CASS) 경제연구소 탕뤼뤼(汤铎铎) 주임

1. 2022년 중국 거시경제 개황

- 2022년 중국경제는 여러 가지 외부 충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의 삼중고가 여전히 존재함. 이와 동시에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및 기타 투자(고정자산, 제조업)가 경제면에서 어렵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중국경제는 2022년 1분기에 애매한 “좋은 출발”로 시작하였으나, 2분기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하이(上海) 등 지역의 봉쇄로 인한 영향을 받았고, 3분기에는 기대를 초과한 회복을 달성하였으며, 4분기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재차 충격을 입음.
 - 2022년 1, 2, 3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0.4%, 3.9%이고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4.8%, 2.5%, 3.0%였음.

표 1. 2020~22년 중국 GDP 성장률 비교

	2020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1분기	-6.90%	-6.90%	18.30%	18.30%	4.80%	4.80%
2분기	3.10%	-1.70%	7.90%	12.70%	0.40%	2.50%
3분기	4.80%	0.60%	4.90%	9.80%	3.90%	3.00%
4분기	6.40%	2.20%	4.00%	8.10%	3.00%	3.00%

그림 1. 2022년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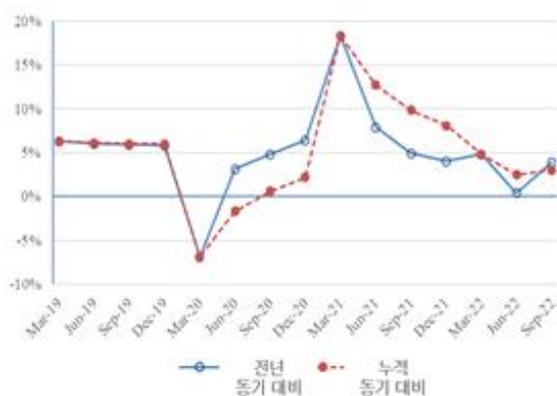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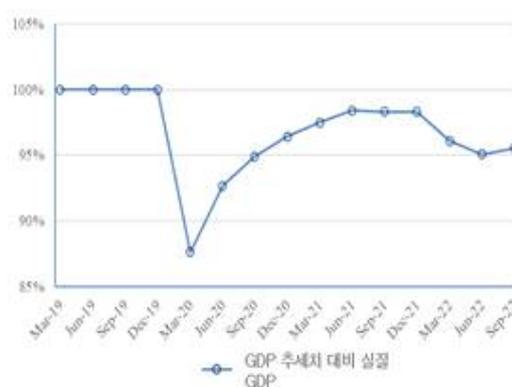


그림 2. 2022년 GDP 추세기 대비 실제 GDP



- 중국의 CPI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PPI는 점차 하락하였으며, 수출입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중국의 CPI와 PPI 추이 (201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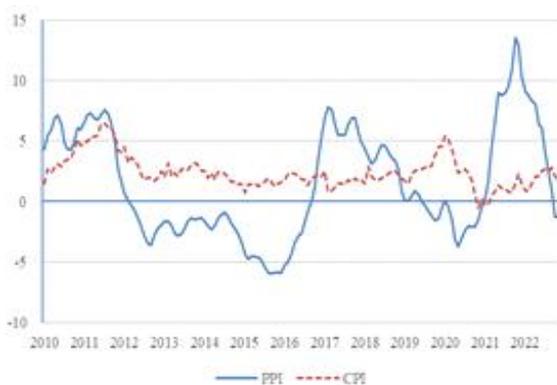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PPI, 수출가격지수, 수입가격지수 추이 (2010~22년)

(단위: %)



- 중국의 취업상황이 경제성장률 추이와 기본적으로 맞물리며, 고용 불안이 비교적 큼.

그림 5.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 신규 취업(누적 동기 대비)



- 경제성장을 저해한 두 가지 직접적 원인은 부동산개발 투자의 하락과 소비의 느린 회복임.
 - 최근 11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9.8% 하락하여 큰 하락세를 보임. 이와 같은 저성장은 중국 발전 20~30년간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임.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소비의 회복이 매우 느리며, 소비자 소매판매액이나 상품 소비, 요식업 수입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그림 6. 중국의 부동산개발 투자 (누적 규모와 누적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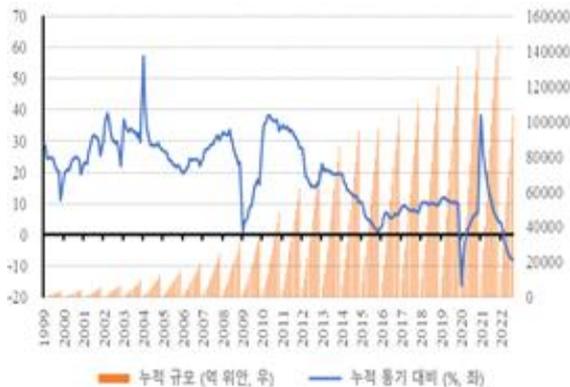


그림 7. 중국의 소비자 소매판매액 85%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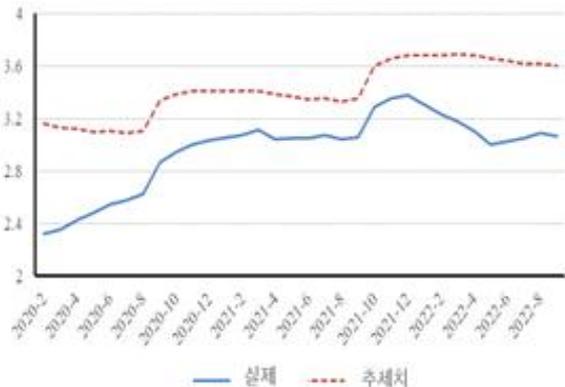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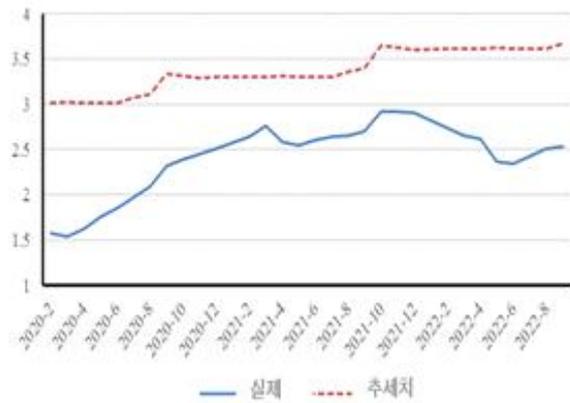


그림 8. 중국의 상품 소비 87% 회복



그림 9. 중국의 요식업 수입 69% 회복



-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및 기타 투자(고정자산, 제조업)가 경제면에서 어렵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정부가 완화된 경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임.
- 2021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을 달성하여 수출입 규모가 6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둠.
- 2021년에 수입가격지수가 오르게 비하여 수출가격지수 상승률이 뒤쳐져 수출입 기업들이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수입가격지수와 수출가격지수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됨.
- 2022년에는 수출입 기업들의 이윤이 높지만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문제에 직면함.

그림 10.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누적, %)



그림 11. 중국 수출입 가격지수(%)



- 올해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독일 자동차기업을 포함한 많은 유럽 기업이 최근 2년간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였음.

- 최근 11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건설 투자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8.6%, 9.0%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훌륭한 성과임.

그림 12.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그림 13. 중국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 건설 투자 (누적 동기 대비, %)



2. 2022년 중국 거시경제 정책 회고

- 2022년에는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크게 강화됨.
 - [온건한 통화정책] 금리와 기준율을 각각 두 차례 인하하여 사회용자 비용이 소폭 하락하였고 통화·신용대출·사회용자총액이 비교적 완화됨.
 - 기대심리가 약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총량 정책 효과가 미미함.
 -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역할을 적극 발휘함.
 - 대내·외 균형을 잘 유지하고,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향상시킴.
 - 대수만관(大水漫灌, 지난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고, 화폐를 초과 발행하지 않으며,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킴.

그림 14. 중국의 금리와 환율의 변동 추이 (2015~22년)
(단위: %)



그림 15. 중국의 주요 통화지표 변화(2015~22년)
(단위: %)



- [적극적인 재정정책] 작년에 비해 효과적인 재정역량이 현저히 확대되고 지출 강도가 강화됨.
 - 1조 6,500억 위안 규모의 국유기관 상납이윤이 2022년 중요한 재정 증액(增量) 요인이 됨.
 - 1조 6,500억 위안의 지출경로: ①지방 재정에 8,000억 위안을 지급하여 2조 5,0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환급 및 감세에 따른 부담 완화 ②일반 공공예산 지출에 1,000억 위안 사용 ③중앙전력기업에 장기적으로 밀린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3,500억 위안 사용 ④토지 출양금이 예상보다 부족할 것에 대비해 4,000억 위안 사용
-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3조 6,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계획과 2조 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세금환급 정책을 발표하였고, 여러 조치가 집중적인 효과를 발휘함.
 - 특별채권의 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6월 30일 이전에 올 한해 발행 임무의 93.1%를 완수함.
 - 자산 재배치(盘活存量资产)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을 낮춤.
 - 정부구매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소비를 촉진함.
 - 공제세액 환급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김.
 - 자동차 소비에 대한 세금지원 정책 범위를 확대함.
- 인프라건설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인프라건설 투자를 지속해서 추진함.
 - 다원화된 자금을 조화롭게 배치함.
 - 재정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재량적 정책 결정 능력을 강화함.
 -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프로젝트 착공·건설의 실행을 추진함.
 - 인프라건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 가능 프로젝트 부족 △안정적인 총량 성장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리스크 방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특별채권 자금 도달 후 프로젝트 지출 진척이 느림 등의 문제가 있음.

□ 그 외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 기타 정책들도 있음.

-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함.
 -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함.
 -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주택 인도, 민생, 안정을 보장함.
 - ‘房住不炒(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의 원칙을 유지함.
-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방역 조치를 최적화함.
-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 추진함.
- 여러 가지 환경보호와 산업정책을 추진함.
- 작년 3분기에 발생한 정책 합성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방지함.

3. 2022년 기타 주요 경제 이슈 회고

-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신발전 구도, 중국식 현대화, 공동부유, 발전과 안보의 전반적인 총괄 등 향후 중국 경제정책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 [신발전 이념에서 신발전 구도까지]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신발전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신발전 구도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 경제발전의 형식과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줌.
 - 신발전 이념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 등 다섯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함.
 - 신발전 구도는 국내대순환을 주제로 하고 국내·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구도임.
 - [중국식 현대화]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중국식 현대화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음.
 -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임.
 - 전체 인민이 공동부유한 현대화임.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임.
 -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임.
 - 평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임.
 - 20차 당대회에서는 공동부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공동부유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명시함.
 - 발전과 안보의 전반적인 총괄
 - 중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과정으로 볼 때 발전과 안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2023년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

□ 2022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정책과 경제분야 중점 내용을 제시하였음.

- [하나의 판단] 회의에서는 중국경제에 대해 삼중고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내림. 이와 동시에 중국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충분하여 내년 경제운영이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논술]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내년에 재정정책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통화정책은 올해 통화 총량정책의 효과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 정책을 위주로 추진할 것임.
- [두 가지 관건]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함.
 -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전환은 내년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전환에 따라 내년 초에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내년 1~2월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음.
 -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롭게 조정될 것이며, 장기적·효율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 회의에서는 또한 내년 경제발전의 다섯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 언급함.
 - 내수확대에 주력하며, 특히 소비의 회복과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
 -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가속 추진함.
 -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두 가지(两个毫不动摇, 공유제 경제와 민간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를 확실하게 실행함.
 - 대외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외자 유치·활용을 크게 확대함.
 -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함.

□ 2023년에 중국경제가 성장 구간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중국경제는 여전히 외부 충격이 빈번한 시기에 처함.

- 2022년 4분기 성장률과 2022년 성장률이 모두 3% 내외일 것으로 전망함.
- 2023년 중국경제가 5.5~6.0%의 성장 구간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조심해야 함.
 - 2019년 GDP 성장률과 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각각 6.0%, 5.1%였음.

-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처해있고 외부 충격이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 코로나19, 미·중 관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임.
- 서비스 소비, 신에너지, 신형인프라 건설과 기타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부동산업이 좋은 발전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2023년의 경영 리스크는 주로 외부에서 초래될 것임.

□ 2023년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 제20차 당대회 개최에 이어 내년 양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음.

질의응답(Q&A):

Q.1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5.5~6.0% 구간으로 전망하시면서 외부 충격이 없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 충격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A.1 첫째, 코로나19의 영향임. 현재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환한 지 2주 정도 되었고, 베이징(北京)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상이한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년 회복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내년 1분기, 심하면 2분기까지 경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둘째, 국제요인임. 현재 미·중관계가 경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전략적 경쟁 추세에 있음. 내년 미국 대선, 새로 선출된 의회의 새로운 아젠다 등 미국 국내 정치적 이슈들이 모두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 외 다른 복합적인 국제요인들도 있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국가의 결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내년에 국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Q.2 금년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줄곧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3분기에도 17%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였음.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기적인 원인 외에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2 경기적인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일부 구조적인 이유도 있음. 한 가지 예로 들면 대학원 입학 준비나 해외 유학 등 취업 이외의 다른 진로를 구상하는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진로 선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예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는데, 현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학 졸업생들은 취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 가능하게 되었음. 중국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구구조, 취업구조, 산업구조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는 중국 노동력 구조나 취업구조가 크게 전환되는 시기라고 생각함.

Q.3 부동산 투자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내년에 이러한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경기 하방압력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호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A.3 부동산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장기적 원인은 바로 중국 부동산업 발전방식의 전환임. 기존에는 대규모 인프라건설 투자와 대규모 부동산 투자의 견인하에 토지출양금(토지 판매대금)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발전방식, 즉 부동산을 위주로 하여 지방 경제를 견인하는 형태였음.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과거의 발전방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섬. 부동산업의 자체적인 특징을 보아도 빠른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산업의 위치에서 점차 정상적인 위

치로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임. 그리고 단기적 요인도 있음. 중국 정부는 중국의 주택가격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1선 도시의 주택가격이 장기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작년 3분기에 일련의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실시하였음. 그 충격을 받아 많은 부동산 기업이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부진하게 됨. 내년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는 불확실성이 크고 예상하기 어려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임. 11월에 발표된 데이터로 볼 때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멈춘다고 해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략 10% 미만의 정상적인 온건한 발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임.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따라 부동산업도 앞으로 오랜 기간 힘들고 변동성이 큰 전환기를 겪게 될 것임.

Q.4 내년에 중국 정부가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될 분야가 내수확대가 될 것으로 보임. 얼마 전 발표된 두 건의 내수확대 전략 관련 계획도 정부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 정책을 “10·5” 계획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12·5”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음. 탕 주임님이 생각하시기에 내수확대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 발표된 계획도 결국 소비보다 투자를 더 중시하는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리고자 함.

A.4 우선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은 여러 가지 다른 단계를 거쳤음.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내수확대 관련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각각 다른 배경들이 있었음. 그중 일부는 장기적·개혁적인 정책이고 일부는 단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중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8~99년 기간 중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수확대 전략을 제기한 적이 있음. 그 배경은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보다 투자를 중시했던 중국의 구조를 전환하고자 했던 원인이 있었음. 개인적으로 볼 때 올해 내수확대 전략을 제기한 것은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소비에 대한 정책 방향 면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음. 첫째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세금감면이나 비용절감, 산업별 급여 인상 등 여러 가지 소득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더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정책도 여기에 포함됨. 둘째는 직접 돈이나 소비쿠폰을 나눠주자는 의견임. 이러한 방식은 미국 등 국가가 이미 실행하였고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음. 현재 많은 경제학자가 후자를 지지하고 있음. 두 가지 의견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원칙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도 별로 없음. 그러나 소득분배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임. 두 번째 방법은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바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것임. 대신 시장행위 등 여러 면에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상당히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미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하며 소득분배의 장기적·효율적 메커니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급한 불을 끌 수는 없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가 아직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므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경제의 내생 동력과 잠재력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 내년 1~2분기에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년 3~4분기나 2024년 1분기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중국의 소비가 다시 활발해지고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